

블랙핑크 지수·업텐션 김우석·뉴이스트 김종현...주말드라마 연기 대결

연기돌 3파전 “눈이 호강하겠네”



그룹 블랙핑크의 지수·업텐션의 김우석·뉴이스트의 김종현(왼쪽부터)이 연기의 세계로 향한다. 주연 드라마를 선보이며 새로운 영역 도전에 나선다.



사진제공 | 각 방송사

‘설강화’ 지수, 6월항쟁 시절 여대생 첫 연기
기속사에 숨어든 정해인과 로맨스도 펼쳐
‘불가살’ 김우석, 불로불사 이진욱의 추종자
‘너의 밤이...’ 김종현, 극중에서도 가수 연기

걸그룹 블랙핑크의 지수, 업텐션의 김우석, 뉴이스트의 김종현(JR) 등 케이(K)팝 아이돌 스타들이 주말 안방극장으로 모여든다. 각기 드라마 데뷔작을 선보이며 신인 연기자로 시청자의 평가를 새롭게 받을 기회를 맞는다. 지수와 김우석은 18일부터 각각 방송을 시작하는 JTBC ‘설강화:스노우드롭’(설강화)과 tvN ‘불가살’로 토일드라마 맞대결을 펼친다. 김종현은 현재 방영 중인 SBS 일요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로 한발 앞서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

이들보다 먼저 연기 세계에 발을 들인 선배 ‘연기돌’(연기하는 아이돌)도 주말 안방극장에 포진해 경쟁의 열기를 더한다. MBC 금토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 이준호, ‘불가살’ 이준 등이다.

●해의 힘슨 블랙핑크 “새 도전 열려”

블랙핑크 멤버로 해외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지수는 2019년 tvN ‘아스달 연대기’에 특별출연한 이후 곧바로 주연으로 발돋움했다. 그는 6월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당차고 밝은 성격의 여대생을 연기한다. 기속사에 숨어든 정해인과 로맨스를 펼친다. 지수는 16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밝은 에너지를 가진 캐릭터에 반했다”면서 “연기 도전이 떨리고 긴장되지만 즐겁게 촬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드라마는 지수의 명성에 힘입어 일찌감치 해외의 관심을 이끌어냈지만, 극중 장승조가 맡은 국가안전기획부 요원을 주요 인물로 그리는 등 일부 캐릭터의 설정과 소재가 당시 시대상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시선을 받아왔다. 연출자 조현탁 PD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만들고 있다. 이야기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우석·김종현도 새 ‘연기돌 스타’ 노린다

2019년 엠넷 아이돌 선발프로그램 ‘프로듀스X 101’

로 이름을 알린 김우석은 ‘불가살’의 주연 이진욱과 호흡을 맞춘다. 극중 불로불사의 존재 이진욱을 따르는, 톡톡 튀는 성격의 소유자다. 지난해 웹드라마 ‘트웬티트웬티’로 연기 경험을 쌓은 그는 “TV드라마는 처음이라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에 출연하는 김종현은 극중에도 가수로 등장한다. 아이돌 밴드의 이야기를 그릴 유 키스 출신 이준영, 워너원 윤지성 등 아이돌 동료들과 그린다. 덕분에 “화기에애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최근 촬영을 마쳤다.

김우석과 함께 ‘불가살’에 출연하는 엠블랙 출신 이준, ‘웃소매 붉은 끝동’을 이끄는 2PM 멤버 이준호 등은 이미 ‘연기돌’로 안방극장에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준은 앞서 군 복무 등으로 보낸 4년의 공백을 ‘불가살’로 메울 기세다. 후배 김우석에게도 “편하게 연기하라”고 조언하는 등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이준호는 ‘웃소매 붉은 끝동’의 시청률을 최근 10.2%(닐슨 코리아)까지 끌어올리며 연말 ‘연기대상’의 유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304@donga.com



‘국민거포는 어디로?’ FA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까지 고려한 통 큰 투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22억5000만 원의 보상금이 필요한 박병호의 이적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원 소속팀 키움과 협상마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FA 박병호에 아직 미온적인 키움 거포 원하는 타팀 깜짝베팅 주목

박병호 한번 만난 키움, 금액 제안 안해
필요한 선수에 과감한 베팅하는 구단들
22억5000만원 보상금 장애편 안될수도

2022년 F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선수들은 현재까지 외야수들이다. 박해민이 LG 트윈스와 4년 60억 원, 박건우가 NC 다이노스와 6년 100억 원의 ‘짜깁’을 터트린 가운데 나성범의 6년 130억 원 이상 계약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계약 소식이 추가될수록 시장은 한층 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해민과 박건우는 이미 대형 계약에 성공했지만, ‘거포’의 이미지가 있는 선수들은 아니다. 나성범, 김재환 등 거포들의 계약 내용에 따라 FA 시장은 또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다. 홈런타자는 FA 시장에서 언제나 ‘꽃’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만 깜짝 카드로 변신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다. 홈런왕 타이틀을 5번이나 차지한 박병호(35)다.

대기만성형의 타자인 박병호는 메이저리그에 다녀오느라 이번 겨울에야 프로 데뷔 후 첫 FA 권리를 행사한다. 30대 중반인 데다, 22억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 때문에 타 팀 이적은 쉽지 않은 FA로 분류됐다. 하지만 시장이 과열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대형 계약을 추진하는 팀들은 보상금까지 고려한 통 큰 투자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보상금이 최대 23억4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나성범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FA 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키움 고형욱 단장은 16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박병호측과는 현재까지 한 번 만났다. 외국인선수 영입을 위해 운영팀장과 함께 12월초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을 다녀왔다. 귀국한 뒤에야 만남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첫 만남에서 FA 계약을 성사시킬 확률은 매우 낮다. 고 단장 역시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제안한 건 없었다. 일단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고 단장은 협상이 길어질 것이라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양측이 서로 시장 분위기를 살필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계약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키움과 타팀 협상, 보상금에 개입하지 않는 시장 분위기. 박병호로서는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업종변경 380만원 대박창업!

점주사공 - 간판류(간판과일제공)
본사지원 - 그릇, 전판홍보, POS,
교육 일체 다포함

바다양분이동태탕
다산형합 흑염소해장국
바다생우럭매운탕

맛에 한번 놀라고!
수익에 한번 놀라고!

바다양분이동태탕
전국 360호점 성업중!

바다양분이동태탕
바다생우럭매운탕

- 성공창업노하우
1. 맛은 목숨걸고 진짜로 확신합니다.
 2. 조리가 간편하여 초보창업자 2일완성
 3. 점심반손님/저녁술손님/배달손님 매출대박
 4. 최고의 마진을 (75%이상) 수익현실
 5. 아채값 부담이 진짜로 없다

(주)바다와 우리
www.badajini.co.kr
창/업/문/의 토.일 상담가능
1811-0153